

2003. 4. 12 제2호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WFFIS Daily

Ever since its inception in 1997, WFFIS has contributed to feminist filmmaking in Asia by introducing films made about women, by women with female points of view representing the world through film. As well as introducing films, it has tried to discover and support talented women filmmakers through its competition section, the "Asian Short Film and Video Competition", which was introduced in the 2nd WFFIS. Films presented in the previous festivals include; "Tender Fictions" by Barbara Hammer, "1 shot Andy Warhol" by Mary Harron, "The Righteous Babes" by Pratibha Parmar and "The Ripples of Change" by Nanuko Kurihara. In last year's festival, which was larger than ever, a "Special Retrospective on Tahmineh Milani" and "Special Screenings of Indian Women's Films" were presented along with 80 other films screened in 7 sections, attracting more than 30,000 people.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거든
수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1분만 늦었어도...
다른 사람과 사랑했겠지

-〈벌거숭이 게임(Naked)〉(감독 도리스 외리) 중에서-

오늘의 영화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1회(10:30) 〈레지나〉
- 2회(13:00) 〈도시의 허울 아래서〉
- 3회(15:30) 〈베를린의 여걸들〉 ★
- 4회(18:00) 〈자유를 향해〉 〈대답해줘〉
- 5회(21:00) 〈벌거숭이 게임〉
- 6회(24:00) 〈쌍쌍쌍〉 〈백일몽〉 〈비너스 보이즈〉 〈백골령의 마검〉 〈가솔린〉

■ 하이퍼텍 나다

- 1회(11:00) 〈일어나라!〉 〈아들에게〉
- 2회(14:00) 〈그녀들만의 것〉
- 3회(17:00) 〈청소녀 감독 작품전〉 ★
- 4회(20:00) 〈사디 베닝 특별전〉

오늘의 영화

■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공연장

- 1회(11:00) 〈삶의 빛깔〉
- 2회(14:00) 〈모랄〉
- 3회(17:00) 〈사랑은 트럭을 타고〉
- 4회(20:00) 〈캐롤라이나〉

오늘의 이벤트

- 핸드인핸드(필리핀 여성 노동자 돕기)
- 동숭아트센터 놀이마당
- 오픈 스테이지 - 동숭아트센터 놀이마당
- 놀이방 - 동숭아트센터 지하2층 키노

★ 상영후 '감독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막식 리뷰



개막식 직전 동숭아트센터 전경



개막작 <미소> 소개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이혜경 집행위원장



사회를 보고 있는 방은진씨와 추상미씨



개막식 전경

Start!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 축제와 나눔의 장으로

여성영화제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손꼽았던 4월 11일, 드디어 동숭홀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7시부터 시작될 개막식을 앞두고, 동숭홀 앞마당은 들썩이는 분위기. 부슬거리는 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관객과 게스트들이 모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했다.

이번 제5회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 꽃 피우기'. 영화제 상영 편수와 같은 120개의 꽃을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나눠주고, 그 꽃을 무대 위 3개의 화분에 꽂게 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변재란 부집행위원장은 "여성영화제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나눔의 장"이라며, 어떻게 일상의 폭력과 전쟁에 저항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영화제 시작을 알리는 리드 필름이 상영되고, 1회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영화배우 방은진과 관객에서 개막작 주인공으로 영화제를 찾은 추상미가 사회를 맡아 개막식을 진행했다. 이혜경 집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쟁의 안타까움 속에서, 영화제를 열게 되었다"며 "전쟁과 갈등이라는 남성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이어 박찬옥 감독, 이창동 문광부 장관, 이충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변영주 감독, <2년 후>를 들고 온 프랑스의 아녜스 바르다 감독, 영화배우 이해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 여성영화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 장관은 "여성들의 도전의식과 실험정신, 자매애를 확인하는 데 서울여성영화제가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 관객들의 입가에 떠오를 미소

영화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다음으로, 3회 여성영화제로 인연을 맺어온 레아 풀 감독의 특별전 소개 순서가 이어졌다. 감독이 채우지 못한 자리는 영상 메시지로 전해졌고, 나머지 섹션과 프로그래머들의 추천작을 묶은 영상물도 상영됐다.

끝으로 개막작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남인영 수석 프로그래머는 삶에 대한 통찰이 잔잔히 잘 드러난 작품으로 <미소>를 소개하고 "여성이 고통을 겪는 영화는 많지만 여성이 고통을 '생각하는' 영화는 거의 없다"며 작품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미소>의 여성 파워 3인, 박경희 감독, 임순례 프로듀서, 주연배우 추상미의 무대인사가 이어졌다. 박경희 감독은 "여주인공의 얼굴에 떠오르지 못한 미소가 관객들의 입가에 떠오르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고, 노 개런티로 영화에 참여한 추상미는 "기존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캐릭터와 다른 모습이라 꼭 하고 싶었다"며 그간의 열정을 드러냈다. 임순례 프로듀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품을 완성해낸 감독의 추진력과, 배우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의 헌신에 박수를 보냈다.

· 즐거운 충격, 8일간의 영화 여행

개막작 <미소>의 상영을 끝으로, 2시간 30분간의 개막행사가 모두 끝이 났다. 동숭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애정과 관심, 그들이 보내는 격려를 안고 이제 영화제는 8일간의 즐거운 충격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WFFIS 속으로! 이제 한판 즐겨보자.

<취재 양은주>